

尙州牧 刊行의 高麗版 『禮記集說』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Yegijipseol* Published by Sangjumok in Goryeo Dynasty

朴文烈 (Park, Moon-Year)*

◁ 목 차 ▷

1. 緒言	3.2 高麗版 『禮記集說』의 刊行人物
2. 『禮記集說』의 編纂과 刊行	3.3 高麗版 『禮記集說』의 書誌的 特徵
2.1 『禮記』의 傳來와 受容	4. 高麗版 『禮記集說』의 後響
2.2 『禮記集說』의 編纂과 版本	5. 結 論
3. 尙州牧 刊行의 高麗版 『禮記集說』	<참고문헌>
3.1 高麗版 『禮記集說』의 刊行記錄	

< 초 록 >

본 연구는 『禮記集說』의 編纂과 刊行을 바탕으로 高麗 공양왕 3년(1391)에 慶尙道 尙州牧에서 覆刻된 高麗版 『禮記集說』의 간행과 관련 인물 및 그 後響 등에 關於하여 考察한 것으로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禮記集說』은 원조의 至治 2년(1322)에 雲莊 陳澹에 의하여 49권 16권으로 저술된 『禮記』의 주석서로 天曆 원년(1328)에 建安의 鄭明德家에서 初刊된 바 있으며, 이 판본은 고려로 전래되어 공양왕 3년(1391)에 慶尙道 尙州牧에서 覆刻되었다.

(2) 高麗版 『禮記集說』에 關於하여는 일찍이 李崇仁과 朴翊 및 李仁榮 교수 등에 의하여 언급된 바 있으나, 朴翊의 <重刊禮記集說箋略>은 그의 후손들이 『松隱先生文集』을 편집할 때 李崇仁의 <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의 “翊言 …”에서 安翊을 지칭하는 ‘翊’을 活用시기가 비슷한 그들의 선조 ‘朴翊’으로 錯入한 데에서 말미암은 오류이다.

(3) 高麗版 『禮記集說』은 安翊이 慶尙道都觀察使로 부임할 때에 金子粹(金自粹)와 閔安仁으로부터 間행을 부탁받아 부임하자마자 尙州牧에서 木板으로 間행하도록 하여 5개월 만에 완성되었으며, 이는 鄭明德家에서 初刊된 목판본을 底本으로 하여 覆刻된 판본이다.

(4) 高麗版 『禮記集說』의 間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은 당시 慶尙道觀察使인 安翊과 尙州牧使인 李復始였으며, 安翊은 間행의 전반적인 사안을 주도하고 李復始는 실제의 間행업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5) 古興藏本の 高麗版 『禮記集說』에는 ‘東湖堂藏’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어 本서가 한때 ‘東湖堂’의 소장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종 8년(1426)부터 賜暇讀書制가 실시된 이래 中宗연간(1506-1544)에 豆毛浦(玉水洞) 근처의 한강 邊에 설치되었다가 임진왜란으로 없어진 ‘東湖讀書堂’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6)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한 『禮記』의 주석서로는 權近의 『禮記淺見錄』을 비롯하여 成三問과 申叔舟가 서로 토론하여 撰도한 『禮記大文診讀』, 崔錫鼎의 『禮記類編』, 金在魯의 『禮記補註』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陳澹의 『禮記集說』을 바탕으로 탄생된 우리나라의 위대한 저술들이다.

要語: 『禮記』, 『禮記集說』, 陳澹, 尙州, 高麗版, 安翊, 李復始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獻情報學科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8년 8월 1일 최초심사일: 2018년 9월 1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18일

서지학연구, 제75집, 45-64,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5.45]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the *Yegijipseol* published by Sangjumok in Goryeo Dynas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Yegijipseol* (禮記集說) is a book of commentaries on the *Yegi* (禮記). Written by Jin Ho in 1322, the book was first published by the House of Jeong Myeong Deok in 1328. This edition found its way into Goryeo, where it was re-engraved onto printing blocks in 1391 in Sangju-mok, Gyeongsang-do.

(2) The Goryeo edition of the *Yegijipseol* was mentioned by multiple commentators including Lee Sung In, Park Ik, Lee In Yeong, and others. Among these names, Park Ik is a mistake for An Ik, who was confused with Park Ik.

(3) Upon taking office as Governor of Gyeongsang-do (Gyeongsang-do Gwanchalsa), An Ik ordered the City of Sangju to create an engraved edition of the *Yegijipseol*, which took only five months to complete. A comparison between the Jeong Myeong Deok edition and the Goryeo edition clearly shows that the latter was re-engraved using the former as its original.

(4) Two figures were directly involved in the publication of the Goryeo version of the *Yegijipseol*: An Ik, who was the Governor of Gyeongsang-do, and Lee Bok Si, who was the Magistrate of Sangju-mok (Sangjumoksa). An Ik oversaw the overall project, while Lee Bok Si led the actual publication efforts.

(5) The Goryeo edition of the *Yegijipseol* held by the Goheung Museum has seal impressions that read “Donghodangjang (collection of Donghodang)” on the front and back. These impressions tell us that the book once belonged to a collection held in a place called Donghodang. The name suggests a connection to “Donghodokseodang”.

(6) Books of commentaries on the *Yegi* written by Korean scholars include the *Yegicheongyeonrok* by Gwon Geun, the *Yegidaemuneonrok* by Seong Sam Mun and Sin Suk Ju, the *Yegiryupyeon* by Choi Seok Jeong, and the *Yegibosu* by Kim Jae Ro. These great works by Korean scholars were created based on Jin Ho's the *Yegijipseol*.

Key words: the *Yegi* (禮記), the *Yegijipseol* (禮記集說), Jin Ho, edition of Sangju(尙州版), edition of Goryeo Dynasty(高麗版), An Ik, Lee Boksi

1. 緒言

『禮記集說』은 元朝의 至治 2년(1322)에 당시의 저명한 理學家이자 교육가인 雲莊 陳澧(1260-1341)에 의하여 49편 16권으로 저술된 『禮記』의 주석서이다.¹⁾

원래 『禮記』는 『易』·『書』·『詩』·『樂』·『春秋』 등과 함께 六經의 하나였으나, 秦朝 始皇의 焚書坑儒로 『樂』의 전래가 단절된 뒤로는 五經의 하나로 『周禮』·『儀禮』와 함께 ‘三禮’로 일컬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中朝에서 전래된 禮書들을 수용하여 실용함²⁾은 물론, 특히 조선시대 초기에는 陽村 權近(1352-1409)이 스승인 牧隱 李穡(1328-1396)의 遺志를 받들어 陳澧의 『禮記集說』을 바탕으로 『禮記淺見錄』을 저술하여 조선의 崇儒政策을 뒷받침하는 국가적인 典故가 되었다.

陳澧의 『禮記集說』은 원조의 至治 2년(1322)에 저술되어 그로부터 6년이 지난 天曆 원년(1328)에 建安의 鄭明德家에서 初刊된 바³⁾ 있으며, 이 판본은 고려로 전래되어 공양왕 3년(1391, 신미)에 慶尙道 尙州牧에서 覆刻된 바⁴⁾⁵⁾ 있다. 權近이 『禮記淺見錄』을 저술할 때에 근거한 陳澧의 『禮記集說』도 바로 尙州牧에서 복각된 高麗版 『禮記集說』이 아닌가 한다.

高麗版 『禮記集說』에 관하여는 한국서지학의 개척자인 鶴山 李仁榮(1911-?)의 『淸芬室書目』에서도 언급된 바⁶⁾ 있으나, 그 후로 지금까지 본 판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던 듯하다.

본 연구는 元朝에서의 『禮記集說』의 편찬과 간행 등의 개괄을 바탕으로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慶尙道 尙州牧에서 간행된 高麗版 『禮記集說』에 관하여 고구함으로써, 고려시대 말기의 지방인쇄 문화를 이해하고 조명하는데 一助하고자 한다.

1) 雲莊 陳澧에 의하여 저술되어 天曆 원년(1328)에 建安의 鄭明德家에서 초간된 본서의 <序文>과 <凡例>에는 ‘禮記集說’이라는 서명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권두의 서명사항에는 ‘禮記 卷第幾’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의 서명은 ‘禮記’였으나 雲莊 陳澧에 앞서 宋朝 衛湜(?-?)의 저술에 ‘禮記集說’이라는 서명이 사용된 바 있으므로, 후대에 이르러 동일한 서명의 구별을 위하여 陳澧의 號나 姓氏를 첨가하여 『雲莊禮記集說』·『陳氏禮記集說』 등으로 칭명하게 된 것이다. ‘鄭明德家版’과 ‘高麗版’의 권두서명도 모두 ‘禮記’이나, 본고에서는 引用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禮記集說』로 통일하고자 한다.

2) 『禮記』의 우리나라 전래는 『增補文獻備考』 <藝文考>의 ‘歷代書籍’條에 의하면 “涵虛子是 ‘箕子가 중국인 5천을 거느리고 朝鮮에 들어올 때 『詩』·『書』·『禮』·『樂』·醫·巫·陰陽·卜筮 등이 모두 따라 들어왔다(涵虛子曰 箕子率中國五千人入朝鮮 其詩·書·禮·樂·醫·巫·陰陽·卜筮之流 皆從往焉)’고 하였다.”는 기록과 “『北史』에 ‘고구려에는 五經과 三史 및 『三國志』 등의 서적이 있다(北史曰 高句麗 書有五經·三史·三國志)’고 하였다.” 등의 기록을 통하여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禮記』가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歷代로 실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陳澧, 『禮記[集說]』. 木版本. [建安]: [鄭明德家], [天曆 1(1328)]. <上海圖書館藏本>.

4) 陳澧,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古興藏本>.

5)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尙州牧에서 覆刻 간행된 高麗版 『禮記[集說]』은 古興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古興藏本 『禮記集說』로 통일하고자 한다.

6) 李仁榮, 『淸芬室書目』. 影印本 (서울: 寶庫社, 1993). 卷3. 壬辰以前刻本及鈔本. 外人撰述上. 133-134. ‘禮記[集說]’條.

“禮記 殘本 七卷 三册 高麗恭讓王三年辛未 尙州刻本 陳澧集說 … 尾有洪武貳拾肆年玖月 慶尙道都觀察使安翊 進重刊陳澧集說禮記殘 按陶隱先生文集卷五載此殘 知爲李崇仁代作也.”

2. 『禮記集說』의 編纂과 刊行

『禮記』는 周朝 말기에서 秦朝를 거쳐 漢朝에 이르기까지의 『禮』에 관한 학설을 集錄한 것으로 『詩』·『書』·『易』·『春秋』·『樂』 등과 같이 『經』이라 하지 않는 것은 『禮』의 기록 또는 『禮』에 관한 經典을 보완·주석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2.1 『禮記』의 傳來와 受容

일찍이 孔子는 虞·夏·殷·周 등 四代 이래의 文物制度和 儀禮·禮節 등을 집대성하고 체계화 하는 것을 책무로 삼아 제자들을 교육할 때에도 ‘禮’를 익히고 실천하는 데에 역점을 둔 바 있으며, 공자의 死後에 고향으로 돌아가 스승의 가르침을 전파하던 그의 제자들도 스승의 뜻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禮’에 관련된 기록도 더욱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秦朝 始皇의 焚書坑儒로 말미암아 대부분 서적이 亡失되었으나, 漢朝의 武帝가 儒學을 官學으로 삼은 이후로 망실되었던 서적들이 점차 다시금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다.⁷⁾

『禮』의 경우는 魯朝의 高堂生이 『士禮』 17편을 전래한 것⁸⁾을 비롯하여 河間獻王 劉德(BC?-BC130)이 『古禮記』 130편을 헌납한 뒤로도 『明堂陰陽記』 33편, <孔子三廟記> 7편, <王史氏記> 21편, 『樂記』 23편 등 214편이 더 출현되었다. 高堂生은 그의 禮學을 蕭奮에게 전하고 蕭奮은 孟卿에게, 孟卿은 后蒼에게, 后蒼은 聞人通漢·戴德·戴聖·慶普 등에게 전하여 大戴禮學·小戴禮學·慶氏禮學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의 학문은 宣帝年間(BC74-BC49)에 이르러 學官이 설치되고 박사를 두었다.

이들 중에서 戴德은 戴聖의 숙부라 ‘大戴’라 일컫고 戴聖은 戴德의 조카라 ‘小戴’라 일컫게 되었으며, 戴德과 戴聖은 흠어진 禮說을 수집하여 戴德은 『大戴禮記』 85편을 편찬하고 戴聖은 『小戴禮記』 49편을 편찬한 후로 大戴禮學과 小戴禮學은 흥성한 반면, 聞人氏와 慶氏의 禮說은 점차 쇠퇴하여 망실되고 말았다.⁹⁾

7) 班固 等撰, 『漢書藝文志』. <楊家駱 主編, 『漢隋藝文經籍志』(臺北: 世界書局, 民國 62(1973))>. 1. ‘總序’條. “昔仲尼沒而微言絕 七十子喪而大義乖 故春秋分爲五 詩分爲四 易有數家之傳 戰國從衡 眞僞分爭 諸子之言紛然 般亂 至秦患之 乃燔滅文章 以愚黔首 漢興 改秦之敗 大收篇籍 廣開獻書之路 迄孝武世 書缺簡脫 禮壞樂崩 聖上喟然而稱曰 朕甚閔焉 於是建藏書之策 置寫書之官 下及諸子傳說 皆充祕府 ….”

8) 班固 等撰, 『漢書藝文志』. 六藝略. 禮. 10-11. ‘禮序’條.

“易曰 有夫婦父子君臣上下 禮義有所錯 而帝王質文世有損益 至周曲爲之防 事爲之制 故曰 禮經三百 威儀三千 及周之衰 諸侯將踰法度 惡其害己 皆滅去其籍 自孔子時而不具 至秦大壞 漢興 魯高堂生傳士禮十七篇 訖孝宣世 后倉最明 戴德·戴聖·慶普皆其弟子 三家立於學官 禮古經者 出於魯淹中及孔氏 學七十篇文相似 多三十九篇 及明堂陰陽·王史氏記所見 多天子諸侯卿大夫之制 雖不能備 猶瘡倉等推士禮而致於天子之說.”

9) 長孫無忌 等撰, 『隋書經籍志』. <楊家駱 主編, 『漢隋藝文經籍志』(臺北: 世界書局, 民國 62(1973))>. 19-20. 經. ‘禮序’條.

『禮記』는 고금을 통하여 수많은 주석서가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後漢朝의 뛰어난 경학자인 鄭玄(127-200)이 『周禮』·『儀禮』·『小戴禮記』 등을 주석한 『三禮註』로 가장 먼저 권위를 인정받았다. 鄭玄은 엄밀한 학문적 자세를 취하여 오류가 분명한 구절이라도 원문의 자구를 고치는 대신 주석으로만 지적하여 원전을 존중한 결과, 당조의 孔穎達(574-648)에 의하여 “禮는 바로 鄭學이다.”¹⁰⁾고 칭송되었다.¹¹⁾

그 뒤 孔穎達이 태종의 칙명으로 『五經正義』의 편찬에 참여하여 鄭玄의 『三禮註』를 바탕으로 熊安生(489-578)과 皇侃(488-545)의 『禮記義疏』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禮記正義』를 정리하자, 『禮記』는 ‘鄭註孔疏’라 하여 다시금 鄭玄의 註와 孔穎達의 疏가 존중되었다. 그 후로 남송조의 晦庵 朱熹(1130-1200)는 『儀禮』·『周禮』·『禮記』 및 諸書를 刪定하여 『儀禮經傳通解』를 저술하였으며 勉齋 黃榦(1152-1221)은 『續儀禮經傳通解』를 저술하였다.¹²⁾

이밖에도 남송조 衛湜의 『禮記集說』, 원조 吳澄(1249-1333)의 『禮記纂言』과 陳澧의 『禮記集說』, 명조 晁庵 胡廣(1370-1418)의 『禮記集說大全』 등이 대표적인 『禮記』의 주석서로 평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胡廣이 『五經四書大全』을 勅撰하는 과정에서 『禮記集說大全』의 찬집에 陳澧의 『禮記集說』을 표준으로 채택한 뒤로 鄭玄의 주석서보다 陳澧의 주석서가 더욱 널리 읽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조 이래로 명조의 『五經四書大全』의 전래를 통하여 『禮記集說大全』이 널리 읽히면서 陳澧의 『禮記集說』이 더욱 熱讀되기에 이르렀다.

“自大道既隱 天下爲家 先王制其夫婦·父子·君臣·上下·親疏之節 至于三代 損益不同 周衰 諸侯僭忒 惡其害己 多被焚削 自孔子時 已不能具 至秦而頓滅 漢初 有高堂生傳十七篇 又有古經 出于淹中 而河間獻王好古愛學 收集餘條 得而獻之 合五十六篇 并威儀之事 而又得司馬穰苴兵法一百五十五篇 及明堂陰陽之記 并無敢傳之者 唯古經十七篇與高堂生所傳不殊 而字多異 自高堂生至宣帝時后蒼 最明其業 乃爲曲台記 蒼授梁人戴德 及德從兄子聖 沛人慶普 于是有大戴 小戴·慶氏 三家并立 後漢唯曹元傳慶氏 以授其子爽 然三家雖存并微 相傳不絕 漢末 鄭玄傳小戴之學 後以古經校之 取其于義長者作注 爲鄭氏學 其喪服一篇 子夏先傳之 諸儒多爲注解 今又別行 而漢時有李氏得周官 周官蓋周公所制官政之法 上于河間獻王 獨闕冬官一篇 獻王購以千金 不得 遂取考工記以補其處 合成六篇奏之 至王莽時 劉歆始置博士 以行于世 河南緱氏及杜子春受業于歆 因以教授 是後馬融作周官傳 以授鄭玄 玄作周官注 漢初 河間獻王又得仲尼弟子及后學者所記一百三十一篇 獻之時 亦無傳之者 至劉向考校經籍 檢得一百三十篇 向因第而叙之 而又得明堂陰陽記三十三篇 孔子三朝記七篇 王史氏記二十一 樂記二十三篇 凡五種 合二百四十四篇 戴德刪其煩重 合而記之 爲八十五篇 謂之大戴記 而戴聖又刪大戴之書 爲四十六篇 謂之小戴記 漢末馬融 遂傳小戴之學 融又定月令一篇 明堂位一篇 樂記一篇 合四十九篇 而鄭玄受業于融 又爲之注 今周官六篇 古經十七篇 小戴記四十九篇 凡三種 唯鄭注立于國學 其餘并多散亡 又無師說。”

10) ① 孔穎達 等撰, 『禮記正義』, <國際文化出版公司 [編], 『十三經注疏』, 第4冊所收分(三河: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 卷14. 月令. 第6. “... 但禮是鄭學 故具言之耳賢者裁焉...”,

② 孔穎達 等撰, 『禮記正義』卷40. 雜記上. 第20. “... 鄭因而解之 禮是鄭學 今申鄭義 ...”

11) 楊天宇, “略論禮是鄭學”. 『齊魯學刊』2002年 第3期(曲阜: 齊魯學刊編輯部, 2002), 90-95.

12) 崔錫鼎, 『禮記類編』. 活字(戊申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肅宗 26(1700). 卷尾. ‘附錄’條.

“案 漢初禮經 始自高堂生 傳之蕭奮 蕭奮傳之孟卿 孟卿傳之后蒼 后蒼最明禮學 戴德·戴聖皆其弟子 禮記即小戴所傳述 有鄭玄註孔穎達疏(今有十三經注疏唐本) 朱子著儀禮經傳通解(以儀禮·周禮·禮記及諸書 刪定成書 初名[儀禮]集傳集註) 黃榦續通解 陳澧著禮記集說 永樂中 皇朝設局 命諸臣(湖廣·楊榮·金幼孜等) 纂修五經四書大全(禮記註 以陳氏爲主 諸家註解 釐爲輯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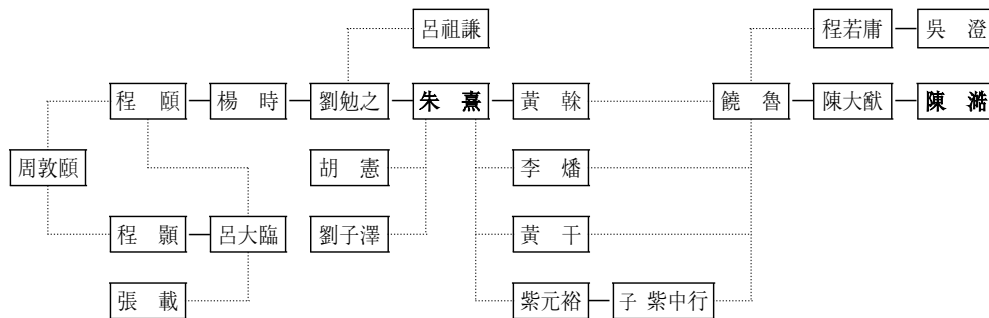
2.2 『禮記集說』의 編纂과 版本

『禮記集說』은 원조 至治 2년(1322)에 陳澧가 『禮記』에 관한 諸家の 學說을 49편 16권으로 集錄하여 저술한 『禮記』의 주석서로 『雲莊禮記集說』 또는 『陳氏禮記集說』이라고도 한다.

陳澧는 자가 ‘可大’이고 號는 ‘雲莊’·‘雲住’·‘北山叟’ 등이며, 세인들은 그를 ‘經歸先生’ 또는 ‘經師先生’이라 불렀다. 그는 江西省 南康府 都昌縣의 教育世家인 義門陳氏의 후예로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經書를 註疏하여 많은 명저를 남겼다. 그의 조부인 陳炳은 淳佑 4년(1244)에 진사가 된 뒤 주로 ‘禮’의 연구에 종사하였으며, 부친인 東齋 陳大猷(1188-1275)는 雙峯 饒魯(1193-1264)의 문인으로 開慶 원년(1259)에 進士가 되어 從政郎과 黃州軍州判官 등을 역임한 일대의 名儒로 『尙書集傳會通』 11권을 저술하여 ‘禮’의 연구에 있어 독보적인 경지에 이른 인물이다.¹³⁾

陳澧의 學術淵源의 系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圖 1> 雲莊 陳澧의 學術淵源 系譜¹⁴⁾



陳澧가 일생토록 ‘禮’의 연구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祖·父가 모두 ‘禮’를 좋아한 것에서 받은 영향이 컸다. 그는 일생토록 聞達이나 出仕에 관심을 두지 않고 향촌에 은거하면서 주로 講學과 저술에 종사하면서 학문에 힘쓰고 옛것을 좋아하였을 뿐 아니라, 선조들의 가업을 계승하여 『易』·『禮』·『書』 등에 정통하였다. 일찍이 江西省 南康府 都昌에 雲住書院을 창건하여 강학하였는데 사람들은 이 서원을 ‘經歸書院’이라고도 하였으며, 그 후로도 江西省 廬山의 白鹿洞書院에 초청되어 2년간 講主를 맡아 적지 않은 명문가의 俊傑들이 그의 명성을 흠모하여 취학함으로써 서원의 학풍이 크게 진작되었다.¹⁵⁾

13) 戴雅萍, “陳澧 禮記集說 平議,” (碩士學位論文, 南京師範大學, 2012), 3-5.

14) 戴雅萍, “陳澧 禮記集說 平議,” (碩士學位論文, 南京師範大學, 2012), 5.

15) 劉千惠, “陳澧 禮記集說之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吳大學, 民國 97(2008)), 6-20.

陳澧의 저술 중에서 후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저작은 『禮記集說』로 이는 명조와 청조의 학교와 서원의 강학에서 ‘御定’의 교과서로 사용되었으며 舉業士類의 필독서이었다. 원조의 經學家인 草廬 吳澄(1249-1333)은 “雲莊은 善讀者로 그가 논설한 『禮』에는 결점이 전혀 없다!”¹⁶⁾라고 그를 칭송하였으며, 明朝의 洪洲 王圻(1530-1615)도 “永樂年間(1403-1424)에 『四書五經大全』을 찬술하여 반사할 때 『禮記』의 경우 古註疏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雲莊의 集說만을 사용하였다.”¹⁷⁾고 기록하고 있어 陳澧의 『禮記集說』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그의 『禮記集說』은 명조와 청조의 학교교육과 科擧考試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만큼, 兩朝의 역대 군왕들은 모두 경앙하여 마지않았다. 그 결과 명조의 弘治 14년(1501)에 칙명으로 都昌縣에 祠宇를 설치하고 제사하였으며, 청조의 雍正 2년(1724)에는 詔命으로 孔廟에 배향되었다.

陳澧는 朱熹의 四傳弟子인 관계로 그의 『禮記集說』은 程朱學派의 학통을 계승하였으며, 나아가 『禮記』에서 교육과 관계가 있는 篇章에는 전승의 기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더욱 상세한 註疏와 解釋을 가함으로써 선명하고 독창적인 그만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陳澧의 『禮記集說』은 원조 至治 2년(1322)에 저술되었으나, 저술이 완료된 후 곧바로 간행에 착수되지는 않은 듯하다.¹⁸⁾ 이는 “서적이 완성된 뒤에 사망으로 학문이 높은 학자들을 찾아가 質正을 받고자 하였으나, 노쇠한 데다 병도 많아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이 실로 곤란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冊幘에 갈무리하여 후세의 식견이 있는 이를 기다리고자 한다. 治教가 隆興하는 날에 혹시라도 禮를 아는 이가 이에서 본받을 것이 있다면, 또한 나의 어리석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¹⁹⁾는 그의 서문을 통하여도 짐작할 수 있다.

현전하는 陳澧의 『禮記集說』의 판본은 16권본 2종과 30권본 및 10권본 등이 가장 계통이 저명한 판본으로 알려지고 있다. 16권본은 원조 天曆 원년(1328)에 建安의 ‘鄭明德家’에서 초간된 판본이며, 그 후로 명조의 正統 12년(1447)에 司禮監에서 중간된 판본도 있다. 30권본은 명조의 成化年間(1465-1487)에 간행된 판본이며, 10권본은 명조의 弘治 17년(1504)에 간행된 판본이다.²⁰⁾

16) 柯劭忞 等撰, 『新元史』.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刊行年不明]. 卷236. 列傳133. 儒林3. ‘陳澧傳’條.

“陳澧 字可大 江西都昌人 父大猷 … 澄復書曰 二陳君可謂善讀書者 其說禮無可疵矣 …”

17) 王圻 等撰, 『欽定續文獻通考』.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刊行年不明]. 卷35. 選舉考. 明. ‘太祖17年’條.
“… 臣等謹案 永樂間 頒四書五經大全 廢注疏不用 其後春秋亦不用張治傳 禮記止用陳澧集說) …”

18) 劉千惠, “陳澧『禮記集說』之版本析論,” 『儒家典籍與思想研究』 2輯(2010), 124-144.

19) 陳澧, 『禮記』.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頭. ‘禮記集說序’條.

“… 書成 甚欲就正于四方有道之士 而衰年多疾 遊歷良艱 姑藏巾笥 以俟來哲 治教方興 知禮者 或有取焉 亦愚者千慮之一爾 至治壬戌良月既望 後學東匯澤 陳澧序.”

20) 沈乃文, “禮記集說版本考,” 『國學研究』 第5卷(1998), 289-302.

3. 尙州牧 刊行의 高麗版 『禮記集說』

현재 高麗版 『禮記集說』의 完帙이 전래되지 않고 있는 연유로 刊記 등 간행기록의 有無조차도 알 수 없으나, 전래되고 있는 殘本²¹⁾과 여러 기록을 통하여 볼 때 高麗版 『禮記集說』은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慶尙道 尙州牧에서 地方官版으로 간행되었다.

3.1 高麗版 『禮記集說』의 刊行記錄

高麗版 『禮記集說』에 관하여는 일찍이 陶隱 李崇仁(1347-1392)의 『陶隱先生文集』²²⁾과 松隱 朴翊(1332-1398)의 『松隱先生文集』²³⁾ 및 鶴山 李仁榮²⁴⁾의 『清芬室書目』²⁵⁾ 등에서 언급된 바 있다.²⁶⁾

『陶隱先生文集』의 <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과 『松隱先生文集』의 <重刊禮記集說箋略> 및 『清芬室書目』의 <禮記> 등에 언급된 高麗版 『禮記集說』의 內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21) 현재 高麗版 『禮記[集說]』의 殘本으로는 古興藏本 권1-2와 奎章閣韓國學研究院 소장의 권4-6 <古181.1143-J562-v.4/6>의 5권 2책에 불과하다.
- 22) 李崇仁 著, 卞季良 編次, 『陶隱先生文集』. 木版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刊行年不明]. 卷5. 文. [表箋]. ‘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條.
- 23) 朴翊 著, 朴在時 編, 『松隱先生文集』. 木版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憲宗 4(1838)]. 卷1. 文. ‘重刊禮記集說箋略’條.
- 24) 李仁榮(1911-?): 근세의 教育家·역사학자·서지학자로 호는 鶴山이며 평양 출신이다. 徽文高等普通學校와 日本 松本高等學校에서 수학하고 1937년에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史學科를 졸업하였다. 광복 이후 京城大學校·延禧大學校 교수로 재임하였으며, 1949년 이후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과 延禧大學校 교수를 겸임하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實證史學에서 출발한 역사학자로 광복 이후에 孫晉泰 등과 더불어 新民族主義史學을 제창하였다. 富豪의 아들이었던 鶴山은 일제강점시대에 많은 문화재가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骨董品과 古書의 수집에 힘을 쏟은 결과 書誌學과 活字研究에도 一家를 이루었다. 『清芬室書目』에 수록된 목록과 해제는 鶴山이 守藏古書를 정리한 자필 원고로 1968년에 영인되었다. 1998년에 鶴山의 제자인 金成俊 교수에 의하여 『鶴山李仁榮全集』 4권이 출간된 바 있다.
- 25) ‘清芬室’은 鶴山 李仁榮이 자신의 고향인 평양의 자택에 설치한 藏書處이며 『清芬室書目』은 清芬室에 소장된 고서들을 鶴山이 직접 정리하고 해제하여 편찬한 書目이다. 필자는 1979년 무렵에 서울에 거주하던 鶴山의 부인 玉靜端 女史로부터 “정분실은 自家의 數棟에 걸치는 넓은 書齋 중에서 고서만을 수집·보관·연구하던 漢籍室이었다. 대지가 1,500평이 넘는 현대식 스텝시설이 완비된 양옥형식의 2층짜리 自家建物에는 ‘清芬室’ 외에도 여러 間의 書齋가 있었고 다량의 骨董品을 따로 보관한 特室도 있었다. 후일 이 소장품들은 北韓政權의 강요에 의하여 寄贈形式으로 金日成大學으로 이관되었다는 후문을 전해 들었다.”는 證言을 청취한 바 있다 <朴文烈, “清芬室書目考,”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大學院, 1980), 3-20.>. 『清芬室書目』에 수록된 귀중한 고서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數種의 고서가 南韓에서 유통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金日成大學에 압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禮記集說』 권7·8·9, 권11·12, 권15·16의 7권 3책도 그 전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때 현재 北韓에 傳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여겨진다.
- 26) 李仁榮, 『清芬室書目』 卷3. 壬辰以前刻本及鈔本. 外人撰述上. 133-134. ‘禮記[集說]’條.
“禮記 殘本 七卷 三冊 高麗恭讓王三年辛未 尙州刻本 陳澹集說 … 尾有洪武貳拾肆年玖月 慶尙道都觀察使安翊 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 按陶隱先生文集卷五載此箋 知爲李崇仁代作也.”

<表 1> 高麗版 『禮記集說』에 관한 各種 文獻記錄의 內容 比較

『陶隱先生文集』	『松隱先生文集』	『清芬室書目』
<p>臣 [安]翊²⁷⁾은 삼가 아뢰옵니다. 신이 듣자옵건대, 『五經』은 모두 世世代代로 教化를 수립하는 소중한 經典들이며, 그 중에도 『禮』의 實踐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옵니다. 옛적 先代의 帝王들께서는 『禮』의 시행을 통하여 지극한 治道를 일으키지 않은 분이 없었다고 하옵니다. 엎드려 살피옵건대 云云. [전하께서는] 神聖한 資質로 祖宗의 統緒를 회복하심은 물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寢殿에 드시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여 지극한 治道를 이루려 노력하신지라, 원로대신을 비롯한 유능한 신하들도 전하를 공경히 섬기며 훌륭한 政事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그 어떤 일도 『禮經』을 본받으려 하시고 遊學하는 선비들도 『禮經』을 전수하여 학습하려고 하옵니다만 그 善本이 세상에 많이 전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신이 전하의 명을 받아옵고 남쪽으로 내려올 적²⁸⁾에 신 金子粹와 閔安仁 등이 국가의 아름다운 뜻을 본받아 신에게 陳滸의 『(禮記)集說』 1부를 간행하도록 부탁한 바, 이에 尙州[牧]에 移文하여 목판에 새기도록 하였는데 목사 신 李復始 등이 이 일을 성실하게 감독한 결과 5개월 만에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신이 그옥이 살피옵건대, 經文 가운데에 '道德과 仁義는 禮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으며, 教導하고 訓戒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것도 禮가 아니면 갖추어지지 않으며, 爭訟을 分辨하는 것도 禮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으며, 軍신과 상하 및 부자와 형제의 관계도 禮가 아니면 안정되지 않으며, 朝班을 정숙히 하고 군대를 다스리며 관직에 있으면서 법을 집행하는 것도 禮가 아니면 위엄이 행하여지지 않으며, 사당에 기도하고 제사하며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도 禮가 아니면 성실하여지지도 장엄하여지지도 않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옵니까? 聖人께서 萬世를 위하여 가르쳐 주신 뜻이 참으로 극진하다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 經을 어찌 하루라도 心目에서 떠나도록 하여서야 되겠사옵니까? 비록 그러하오나 신이 또한 살피옵건대, '毋不敬'이라는 세 글자가 이 하나의 經의 으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堯의 '敬明', 舜의 '溫恭', 禹의 '祗德', 湯의 '聖敬日躋', 文王의 '小心翼翼'으로 성인들께서 서로 전하신 心法인 것이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社稷의 安危, 生靈의 休戚, 君子와 小人의 進退와 消長, 天命과 人心의 去就와 離合 등은 실로 군주의 마음이 공경스러우나 공경스럽지 않은가의 잠깐 사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云云. [전하께서는] 聖經에 마음을 두시고 깊이 생각하시어, 機務를 결단할 때도 한결같이 공경에 의지하시고 한가로이 계실 때에도 한결같이 공경에 의지하심으로써 성대한 德과 다스린 功이 옛적 先代의 帝王들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시면 하옵니다. 신은 지극한 소원을 가눌 길이 없을 따름이옵니다! 云云.²⁹⁾</p>	<p>臣이 듣자옵건대, 『五經』은 모두 世世代代로 教化를 수립하는 소중한 經典들이며, 그 중에도 『禮』의 실천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옵니다. 옛적 先代의 帝王들께서는 『禮』의 시행을 통하여 지극한 治道를 일으키지 않은 분이 없다고 하옵니다. 엎드려 살피옵건대, 전하께서는 神聖한 資質로 祖宗의 統緒를 회복하심은 물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寢殿에 드시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여 지극한 治道를 이루려 노력하신지라, 원로대신을 비롯한 유능한 신하들도 전하를 공경히 섬기며 훌륭한 政事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그 어떤 일도 『禮經』을 본받으려 하시고 遊學하는 선비들도 『禮經』을 전수하여 학습하려고 하옵니다만 그 善本이 세상에 많이 전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以下 缺文]³⁰⁾</p>	<p>禮記』는 7권 3책의 殘本이다. 고려 공양왕 3년(1391, 신미)에 尙州에서 관각한 판본으로 陳滸가 集說한 것이다. 권7·8·9, 권11·12, 권15·16의 도합 7권 [3책]이 殘存하고 있다. [板式은] 四周單邊에 界線이 없으며 每半葉은 11행 21자이고 주는 쌍행이다. 匡郭은 세로 19.0 내지 20.5cm이고 가로 13.0cm이다. [版心에는] 黑口가 있으며, [권]미에는 '洪武 24년(1391) 9월에 慶尙道都觀察使 安翊의 <進重刊陳滸集說禮記箋>이 수록되어 있다.' 고구건대 『陶隱先生文集』 권5에 본 箋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李崇仁이 [安翊을 위하여] 代作한 것임을 알 수 있다.³¹⁾</p>

27) 原文에는 “臣翊言 …”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安翊(?-1410)을 지칭하는 것임이 확실하다.
 28) 이는 安翊이 공양왕 3년(1391, 신미) 2월에 慶尙道都觀察使 黜陟使에 제수되어 부임할 때를 지칭하는 것이다. “辛未 二月日 都觀察使 黜陟使 匡靖 大夫 兼 監倉 安集 轉輸 勸農 管學 事 提調 刑獄 兵馬 公司 安翊.” <國會圖書館 編, 『道先生案』, 影印本 (서울: [國會圖書館], 1970), 24.>
 29) 李崇仁 著, 卞季良 編次, 『陶隱先生文集』 卷5. 文. [表箋]. ‘進重刊陳滸集說禮記箋’條. “臣翊言 臣聞 五經皆垂世立教之大典 而禮之用爲急 古先帝王莫不由之以興至理[治] 伏以云云 以神聖之資復 祖宗之統 夙興夜寐 殫精求理[治] 原臣 頌輔 同寅 協恭 凡所制作 動法 禮經 游學之士 亦欲傳習 顧惟善本 世不多

『陶隱先生文集』과 『松隱先生文集』 및 『清芬室書目』 등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陶隱先生文集』에 수록된 <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은 李崇仁이 安翊(?-1410)을 대신하여 저작한 것으로, 安翊이 慶尙道都觀察使로 제수되어 부임할 때에 桑村 金子粹(개명 金自粹, 1352-1413)와 閔安仁(1343-1398) 등으로부터 陳澹의 『禮記集說』의 간행을 부탁받아 부임하자마자 尙州[牧]으로 하여금 목판으로 간행하도록 하였는데 목사인 李復始 등이 일을 성실하게 감독한 결과 5개월 만에 모두 완성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朴翊의 『松隱先生文集』에 수록된 <重刊禮記集說箋略>은 『陶隱先生文集』에 수록된 <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의 略記로, 그의 후손들이 『松隱先生文集』을 편집할 때 <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의 “臣翊言 臣聞五經皆垂世立教之大典…”의 安翊을 지칭하는 ‘翊’을 활동시기가 비슷한 그들의 선조인 ‘朴翊’으로 錯入한 데에서 말미암은 오류로 판단된다.

이는 朴翊이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李仁榮이 高麗版 『禮記集說』 권16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증언한 “[권]미에 ‘洪武 24년(1391) 9월에 慶尙道都觀察使 安翊의 <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이 수록되어 있다.”³²⁾는 기록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따라서 『松隱先生文集』에 수록된 <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은 ‘朴翊’과 관련된 기록이 아니라 ‘安翊’과 관련된 기록이며, 『松隱先生文集』의 <重刊禮記集說箋略>은 僞作일 뿐인 것이다.

『清芬室書目』은 해박한 서지학적 지식을 갖춘 李仁榮이 직접 저작한 韓國書誌學의 개척서로, 형태서지학적인 자세한 기술은 물론 권16의 말미에 洪武 24년(1391) 9월에 慶尙道都觀察使 安翊이 찬술한 <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이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箋文은 『陶隱先生文集』 권5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安翊을 대신하여 李崇仁이 대작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有頃臣受命南來 臣金子粹·閔安仁體國家美意 以陳澹集說一部囑臣刊行 移文尙州俾之鉅梓 牧使臣李復始等董事 惟謹閱五月而功告成 臣竊觀經文有曰 道德仁義非禮不成 教訓正俗非禮不備 分爭辨訟非禮不決 君臣上下父子兄弟非禮不定 班朝理軍莅官行法非禮嚴威不行 禱祠祭祀供給鬼神非禮不誠不莊 大哉言乎 聖人所以爲萬世教可謂盡矣 然則是經 豈可一日離於心日哉 雖然臣又觀 毋不敬三字爲一經之冠 此乃堯之敬[欽]明舜之溫恭 禹之祗德 湯之聖敬日躋 文王之小心翼翼 聖相傳之心法也 自古以來 社稷之安危 生靈之休戚 君子小人之進退消長 天命人心之去就離合 實係乎君心敬與不敬暫焉之頃矣 伏望云云 潛心聖經 機務之決一於敬 燕閒之居一於敬 盛德理功無愧古先 臣不勝至願 云云.” <‘理[治]’의 ‘理’는 고려 제6대 成宗의 避諱字이며, ‘敬[欽]’의 ‘敬’은 고려 제9대 德宗의 避諱字이다.>

30) 朴翊 著, 朴在時 編, 『松隱先生文集』 卷1. 文. ‘重刊禮記集說箋略’條.

“臣聞 五經皆垂世立教之大典 而禮之用爲急 古先帝王莫不由之以興至治 伏見 殿下以神聖之資復祖宗之統 夙興夜寐勵精求治 原臣碩輔同寅協恭 凡所制作動法禮經 遊學之士亦欲傳習 顧惟善本世不多有[缺].”

31) 李仁榮, 『清芬室書目』 卷3. 壬辰以前刻本及鈔本. 外人撰述上. 133-134. ‘禮記[集說]’條.

“禮記 殘本 七卷三冊 高麗恭讓王三年辛未尙州刻本 陳澹集說 存卷七至九 十一至二 十五至六 凡七卷 高麗恭讓王[衍文] 四周單邊 無界 每半葉 十一行 行二十一字 註雙行 匡郭 長一九·〇 浬乃至二〇·五 浬 廣十三·〇 浬 黑口 尾有‘洪武貳拾肆年玖月 慶尙道都觀察使安翊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 按陶隱先生文集卷五載此箋 知爲李崇仁代作也.”

32) 李仁榮, 『清芬室書目』 卷3. 壬辰以前刻本及鈔本. 外人撰述上. 133-134. ‘禮記[集說]’條.

“… 尾有洪武貳拾肆年玖月 慶尙道都觀察使安翊 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 ….”

3.2 高麗版 『禮記集說』의 刊行人物

高麗版 『禮記集說』의 간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은 당시 慶尙道觀察使인 安翊과 尙州牧使인 李復始이다.

3.2.1 安翊

安翊(?-1410)은 高麗版 『禮記集說』의 간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事案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麗末鮮初의 문신으로 公山(公州)安氏의 시조이며, 시호는 靖平이다.³³⁾ 부인은 延安 李係孫³⁴⁾의 따님으로 益齋 李齊賢(1287-1367)의 외손녀³⁵⁾이다.

安翊은 선조들이 대대로 鄉吏를 지낸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관리의 직무에 능하여 공민왕 조에 여러 州郡의 수령을 역임하여 그 공적이 뛰어났으며, 우왕 원년(1375)에 慶尙道按廉使를 역임 하고³⁶⁾ 우왕 4년(1378)에 密直副使를 거쳐³⁷⁾ 이듬해(1379)에 楊廣道都巡問使를 역임³⁸⁾하였다.

우왕 6년(1380)에는 왜적을 방어하지 못하여 流配되었다가³⁹⁾ 우왕 12년(1386)에 門下評理로 聖節使가 되어 명조의 南京으로 건너가 뛰어난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⁴⁰⁾ 돌아온 뒤, 공양왕 3년

3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0年 12月 7(己亥)日條.

“… 翊少習吏事 秉心剛直 所歷州郡 皆有聲績 上聞其卒曰 翊雖非當代見用之人 有著舊之勞 命有司祭其殯 輟朝三日 諡曰靖平 無子.”

34) 李係孫의 가계는 “李漬(延安 府使公派祖) - 係孫(02) - 鷺(03) - 亮(04) - 伯謙(05) - 末丁(06) - 淑琦(07) - 世範(08) - 國柱(09) - 友閔(10) - 景崔(11) - 聖賚(12) - 濟夏(13) - 彥馨(14) - 徵耆(15) - 秉恒(16) - 明稷(17) - 相夏(18) - 學教(19) …”로 系譜되고 있다. <[編著者不明], 『南譜』. 筆寫本. [筆寫地不明]: [筆寫者不明], [筆寫年不明]. 卷1. 延安李氏. ‘延李’條. 張36A.>

35) 李穡 著, 李德洙 編, 『牧隱文藁』. 木版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仁祖 4(1626)]. 卷16. 墓誌銘. ‘雞林府院君諡文忠李公墓誌銘’條.

“至正二十七年歲在丁未秋七月 … 益齋先生李公 以病卒于第 年八十一 大常諡文忠公 … 公凡三娶 吉昌國夫人 權氏 生二男三女 長男曰瑞種 奉常大夫宗簿副令 次日達尊 奉常大夫典理摠郎寶文閣直提學知製教 長女適正 順大夫判司僕寺事任德壽 次適中正大夫典農正李係孫 … 典農正生二男一女 長曰隲 郎將 次日亮 中郎將 女適 通憲大夫判繕工寺事安翊 …”

36) ① 國會圖書館 編, 『道先生案』. 影印本 (서울: [國會圖書館], 1970), 23.

“乙卯 春夏等按廉尹邦彥 秋冬等安翊.”

② [編著者不明], 『慶尙道邑誌』. 筆寫本. [筆寫地不明]: [筆寫者不明], [筆寫年不明]. 冊1. 大邱府邑誌. ‘營先生 都府署使’條.

“安翊 [乙卯] 秋冬.”

37) 金宗瑞 等撰, 『高麗史節要』.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辛禡 4年 10月條.

“以王承貴 · 金光厚 · 崔準 · 金漢禪 · 安翊 · 張夏 · 睦子安爲密直副使.”

38) 金宗瑞 等撰, 『高麗史節要』. 辛禡 5年 4月條.

“以密直副使安翊 爲楊廣道都巡問使.”

39) 金宗瑞 等撰, 『高麗史節要』. 辛禡 6年 5月條.

“以不能禦倭 杖流全羅道助戰元帥崔公哲 楊廣道都巡問使安翊 斬都鎮撫二人.”

40) 金宗瑞 等撰, 『高麗史節要』. 辛禡 12年 6月條.

(1391) 2월에 匡靖大夫에 오르고 慶尙道都觀察使黜陟使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に 제수⁴¹⁾되었으며 11월에는 判開城府事에 제수되었다.⁴²⁾

安翊은 慶尙道都觀察使로 남하할 때에 金子粹와 閔安仁 등으로부터 『禮記集說』의 간행을 부탁을 받고 부임한 뒤, 당시 尙州牧使인 李復始 등에게 이의 간행을 권유하여 5개월 뒤인 동년(1391) 9월에 畢役시킴으로써 高麗版 『禮記集說』의 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공양왕 4년(1392) 정월에 判開城府事로서 吁齋 趙浚(1346-1405)과 柳珣(1335-1398) 및 洛圃 金士衡(1341-1407) 등과 함께 臺諫으로써 이름을 떨치고⁴³⁾ 門下評理에 제수⁴⁴⁾되었으며, 이때부터 당시의 권문세가들에게 李成桂(1335-1408)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뒤에 크게 신임을 얻었으나 6월에 圃隱 鄭夢周(1337-1392)가 善竹橋에서 살해된 후에 그와 同類라는 이유로 門下贊成事로서 遠地에 유배되기도 하였다.⁴⁵⁾

조선이 개국되자 태조 2년(1393)에 開國功臣으로 녹훈⁴⁶⁾되면서 赦免되어 태조 5년(1396)부터는 參贊門下府事로서⁴⁷⁾ 白岳山에 제사하고⁴⁸⁾ 명조의 南京에 正朝를 하례하기 위하여 使行⁴⁹⁾하는

“遣門下評理安翊 如京師賀聖節 密直副使柳和賀千秋 時奉使人還 執政視賂多少 高下其官 或不如欲 必中傷之以故奉使者 規免其禍 不得不貿易 翊流涕太息曰 吾嘗以爲遣宰相朝聘者 爲國家耳 今日乃知爲權門營產也.”

41) ① 國會圖書館 編, 『道先生案』. 影印本 (서울: [國會圖書館], 1970), 24.

“辛未 二月日 都觀察使黜陟使匡靖大夫兼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安翊 ….”

② [編著者不明], 『慶尙道邑誌』. 筆寫本. [筆寫地不明]: [筆寫者不明], [筆寫年不明]. 冊1. 大邱府邑誌. ‘營先生都府署使’條.

“安翊 辛未兼監倉安集轉輸勸農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

42) 金宗瑞 等撰, 『高麗史節要』. 恭讓王 3年 12月條.

“以權仲和·成后璘爲三司左右使 安翊判開城府事 趙仁瓊爲密直副使 仲和與鄭地 坐彝初事得罪 至是 皆復職 蓋欲官禹氏之漸也.”

43) 金宗瑞 等撰, 『高麗史節要』. 恭讓王 4年 1月條.

“… 以贊成事趙浚 判開城安翊 藝文館大提學柳珣 知門下金士衡代之 命省憲 與巡軍同鞠.”

44) 金宗瑞 等撰, 『高麗史節要』. 恭讓王 4年 1月條.

“以柳曼殊判開城府事 權仲和爲門下贊成事 趙浚爲三司左使 安翊爲門下評理 朴遠爲密直使 李崇仁知密直司事 金受益同知密直司事.”

45) 金宗瑞 等撰, 『高麗史節要』. 恭讓王 4年 6月條.

“都評議使司 執前判三司事禹玄寶 及其子知密直司事洪壽 … 及門下贊成事安翊 判開城府事金南得 … 內官姜仁富 流于遠地 使經歷張至和 啓王曰 玄寶等 屢干罪犯 過蒙寬宥 猶不改心 乃更謀亂 禍機急迫 未及啓聞 將玄寶等 分配于外 臣等聞亂 賊子 人得而誅之 故敢用先發後聞.”

4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2年 8月 15(戊子)日條.

“教曰 前門下贊成事安翊等十一人 自辛氏竊位亂極思治之際 安危皆注意於予 諭德宣譽 馴致今日 功亦不細矣 其褒賞之典 有司舉行.”

4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5年 7月 21(丙子)日條.

“上命都評議使司 徵發各道軍人 畢築都城 問其可否 贊成事以下皆曰否 … 上曰 予已命各道觀察使 給築城赴役之糧 參贊門下府事安翊對曰 臣等未知已有給糧之令 以爲否 臣等皆有罪焉 上聞翊言 怒稍弛 命賜酒遣之.”

4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5年 9月 1(丙辰)日條.

“以天變地怪屢見 命參贊門下府事安翊 政堂文學韓尙質 祭于白岳山 又遣人於諸寺 設消災法席.”

4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5年 10月 3(丁亥)日條.

등 각종 국정에 참여하였다. 태조 6년(1397)에 당시 불편하던 양국관계의 해소에 힘쓰고 勅慰詔書·宣諭聖旨·御製詩·禮部咨文 등을 받들고 돌아와⁵⁰⁾ 贊成事를 역임하였으며, 이듬해(1398) 憲司에서 三司左僕射인 그의 죄를 청하였으나 年老하여 용서되기도⁵¹⁾ 하였다.

그 후로도 조정에 視事하고⁵²⁾ 백관 및 공신들과 함께 耆老宰樞로서 諫正에 나아가기도⁵³⁾ 하였으나, 태종 10년(1410) 12월에 卒去하자 ‘靖平’으로 諡號되었다.⁵⁴⁾

3.2.2 李復始

李復始(?-?)는 高麗版 『禮記集說』의 간행에 있어 당시 尙州牧使로서 실제의 간행업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李復始의 자세한 行歷은 알 수 없으나, 고려 우왕 6년(1380) 春夏間에 慶尙道按廉使에 제수된 바⁵⁵⁾ 있고 공양왕 2년(1390)에 상주목사로서 상주목의 公廡舍를 창건하기도 하였다.⁵⁶⁾ 특히, 공양왕 3년(1391)에 상주목사로 재임하면서 당시 慶尙道都觀察使로 부임한 安翊으로부터

“遣參贊門下府事安翊 同知中樞院事金希善 如京師賀明年正.”

5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6年 3月 8(辛酉)日條.

“參贊門下府事安翊 同知中樞院事金希善 藝文春秋館學士權近 齋擊皇帝勅慰詔書 及宣諭聖旨·御製詩·禮部咨文二道 回自京師 其勅慰曰 ….”

5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7年 2月 6(癸未)日條.

“憲司請三司左僕射安翊等罪曰 廣興倉使柳善 注簿鄭尙周任領祿之務 剩計報三司 而翊及三司諮議安以寧等 掌出納之任 不察而剩與之 俱各失職 請皆罷職不敘 上允之 乃以翊年老 再奉使上國 特宥之.”

5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祖 7年 2月 8(乙酉)日條.

“命僕長壽·李恬·安翊視事.”

5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9年 7月 29(己亥)日條.

“百官功臣 咸進闕庭 耆老宰樞安翊等十餘人 亦與焉 ….”

5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10年 12月 7(己亥)日條.

“檢校議政府贊成事安翊卒 翊少習吏事 秉心剛直 所歷州郡 皆有聲績 上聞其卒曰 翊雖非當代見用之人 有耆舊之勞 命有司祭其殯 輟朝三日 諡曰靖平 無子.”

55) ① 國會圖書館 編, 『道先生案』. 影印本 (서울: 國會圖書館, 1970), 23.

“庚申 春夏等按廉李復始 秋冬等全五倫.”

② [編著者不明], 『慶尙道邑誌』. 筆寫本. [筆寫地不明]: [筆寫者不明], [筆寫年不明]. 冊1. 大邱府邑誌. ‘營先生都府署使’條.

“李復始 庚申 春夏.”

56) ① 徐居正 等撰, 『東文選』.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刊行年不明]. 卷80. 記. ‘尙州風詠樓記(權近)’條.

“尙州 本沙伐國 自屬新羅爲大府 … 庚申(1380)之歲 倭寇侵犯 官屋民廬 盡罹兵燹 明年辛酉(1381) 半刺田君理 始築州城 招輯遺民 因舊基創別館 以待使命 庚午(1390) 牧使李公復始 又創廡舍 而亭榭皆未暇及 … 永樂六(1408)年秋七月日.”

② 李荇 等撰, 『新增東國輿地勝覽』.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光海君 3(1611)]. 卷28. 慶尙道. 尙州牧. 樓亭. ‘風詠樓’條.

“權近記 尙州 本沙伐國 自屬新羅爲大府 … 庚申之歲 倭寇侵犯 官屋民廬 盡罹兵燹 明年辛酉 半刺田君理 始築州城 招輯遺民 因舊基創別館 以待使命 庚午 牧使李公復始 又創廡舍 而亭榭皆未暇及 ….”

③ [編著者不明], 『慶尙道邑誌』. 筆寫本. [筆寫地不明]: [筆寫者不明], [筆寫年不明]. 冊6. 尙州牧邑誌. ‘宦蹟’條. “李復始 爲牧使倉廡舍.”

『禮記集說』의 간행을 부탁받아 5개월이 지난 동년(1391) 9월에 이를畢役함으로써 高麗版『禮記集說』의 간행에 실제적인 역할을 완수한 인물이기도 하다.⁵⁷⁾

그 뒤의 李復始에 관한 기록으로는 태종 원년(1401)에 左散騎常侍로서 金若采와 全順 등의 탄핵을 상소한 것⁵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더 이상의 行歷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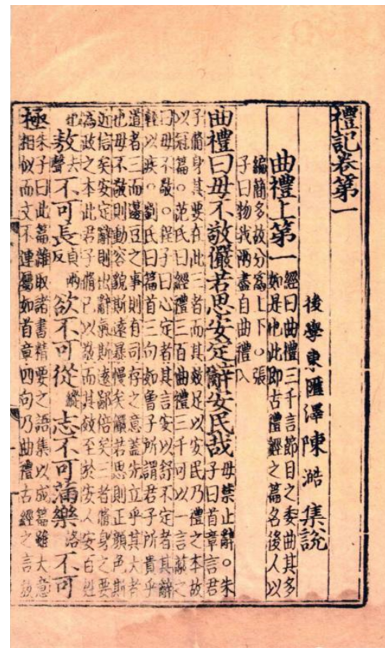
3.3 高麗版『禮記集說』의 書誌的 特徵

高麗版『禮記集說』은 원조 至治 2년(1322)에 陳澹에 의하여『禮記集說』이 저술된 뒤 天曆 원년(1328)에 建安의 鄭明德家에서 초간된 목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覆刻된 版本으로 추정된다.

元朝 鄭明德家版『禮記集說』과 高麗版『禮記集說』의 書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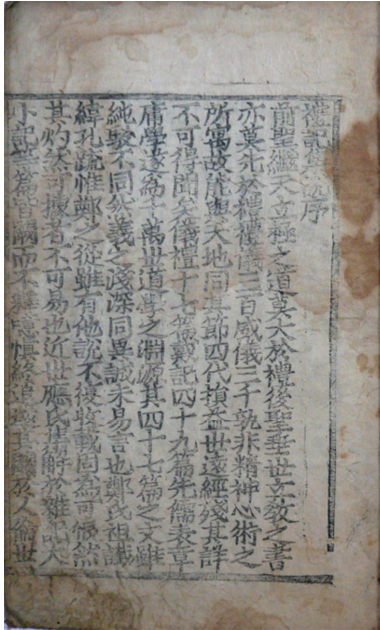


高麗版本『禮記集說』〈卷1〉



鄭明德家版『禮記集說』〈卷1〉

57) 李崇仁 著, 卞季良 編次, 『陶隱先生文集』卷5. 文. 表箋. ‘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條.
 “臣翊言 臣聞五經皆垂世立教之大典 … 顧惟善本 世不多有 項臣受命南來 臣金子粹 閔安仁體國家美意 以陳澹集說一部 囑臣刊行 移文尙州 俾之鋟梓 牧使臣李復始等董事惟謹 閱五月而功告成 …”
 5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太宗 元年 1月 26(丙戌)日條.
 “門下府郎舍左散騎常侍李復始等 劾金若采·全順 上疏曰 … 今密陽府使柳斗明·知襄州事李灌·黃州判官安從約等 爲憲官 將大司憲金若采·中丞全順不顧掌務得罪 公然視事之狀 … 伏望殿下 以柳斗明·李灌·安從約等 置之顯秩 將其所啓之事 俞允施行 以明賞罰 公道幸甚 上不允 …”



高麗版本 『禮記集說』〈序文〉



高麗版本 『禮記集說』〈凡例〉

<寫眞 1> 『禮記集說』의 各種 書影

한편, 원조 天曆 원년(1328)에 建安의 鄭明德家에서 초간된 『禮記集說』과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慶尙道 尙州牧에서 간행된 高麗版 『禮記集說』에 나타나는 서지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表 2>와 같다.

元朝 鄭明德家版의 『禮記集說』과 高麗版 『禮記集說』의 서지적인 특징을 통하여 볼 때, 양 판본은 書名·著者·卷冊數 등의 사항은 물론 序文·凡例·序題·卷頭題·版心題·版耳題·卷尾題·行字數·注文·版口·魚尾 등의 사항은 모두 동일하나, 版種·刊行地·刊行處·刊行年·規格·跋文·紙質·裝訂·殘卷·藏書印·所藏處 등의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尙州牧에서 지방관관으로 간행된 高麗版 『禮記集說』은 원조 天曆 원년(1328)에 建安의 鄭明德家에서 초간된 목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覆刻된 판본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한편, 古興藏本의 高麗版 『禮記集說』(권1-2) 殘卷 1책의 冊頭와 冊尾에는 ‘東湖堂藏’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바, 본서가 한때 ‘東湖堂’의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東湖堂’은 세종 8년(1426)부터 賜暇讀書制가 실시된 이래 중종연간(1506-1544)에 豆毛浦(玉水洞) 근처의 한강 변에 설치되었다가 임진왜란으로 없어진 ‘東湖讀書堂’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⁵⁹⁾

5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中宗 5年 1月 19(丙子)日條.
“弘文館校理洪彥弼 將大提學意啓曰 賜暇讀書人員 寓居淨業院 似不合 龍山古基 傾頽不可改構 豆毛浦 月松庵 近地 平衍 有可構處 木石之輸亦便近 限日起構 使之讀書何如 傳曰 可.”

<表 2> 元朝 鄭明德家版『禮記[集說]』과 高麗版『禮記[集說]』의 書誌의 特徵

番號	事項	鄭明德家版本(1328)	高麗版本(1391)			備考
		上海圖書館藏本	古興藏本	奎章閣藏本	淸芬室藏本	
01	書名	禮記	禮記	禮記	禮記	
02	著者	後學東匯澤陳澐集說	後學東匯澤陳澐集說	後學東匯澤陳澐集說	後學東匯澤陳澐集說	
03	版種	木版本[初刻私人版]	木版本[覆刻官版]	木版本[覆刻官版]	木版本[覆刻官版]	
04	刊行地	建安	[慶尙道]	[慶尙道]	[慶尙道]	
05	刊行處	鄭明德家	[尙州牧]	[尙州牧]	尙州牧	
06	刊行年	天曆 元(1328)年	[恭讓王 3(1391)]	[恭讓王 3(1391)]	[恭讓王 3(1391)]	
07	卷冊數	16卷/[8]冊	16卷/[8]冊	16卷/[8]冊	16卷/[8]冊	
08	序文	至治壬戌年(1322)	至治壬戌年(1322)	[不明]	[不明]	
09	凡例題	[禮記集說]	禮記集說	[不明]	[不明]	
10	序題	[禮記集說]	禮記集說	[禮記集說]	[禮記集說]	
11	卷頭題	禮記	禮記	禮記	禮記	
12	版心題	禮記	禮記	禮記	禮記	
13	板耳題	各篇名	各篇名	[各篇名]	[各篇名]	
14	卷尾題	禮記	禮記	禮記	[禮記]	
15	邊欄	四周雙邊	四周單邊[(不同)]	四周單邊[(不同)]	四周單邊[(不同)]	
16	半郭	20.6×13.1cm	19.2-20.4×12.5-.8cm	19.2×12.3cm	19.0-20.4×13.0cm	
17	界線	有界	無[有混]界	無[有混]界	無[有混]界	
18	行字數	11行21字	11行21字	11行21字	11行21字	
19	註文	小字雙行	小字雙行	小字雙行	小字雙行	
20	板口	上下大黑口	上下大黑口	上下大黑口	上下大黑口	
21	魚尾	上下下向黑魚尾	上下下向黑魚尾	上下下向黑魚尾	上下下向黑魚尾	
22	規格	28.3×18.0cm	24.8×16.1cm	27.8×16.9cm	[不明]	
23	跋文	潘景鄭跋	[不明]	[不明]	安翊 箋文 ⁶⁰⁾	
24	紙質	漢紙(竹紙)	韓紙(楮紙)	韓紙(楮紙)	韓紙(楮紙)	
25	裝訂	線裝	線裝	線裝	線裝	
26	殘卷	卷1·2等	卷1·2	卷4·5·6	卷7·8·9/11·12/15·16	
27	藏書印	'伯寅藏書'等	'東湖堂藏'	[不明]	[不明]	
28	所藏處	上海圖書館等數處	古興博物館	奎章閣	[淸芬室]	

또한, 後表紙의 이면에는 中唐의 시인인 錢起(722-780)의 “瀟湘何事等閑廻 水碧沙明兩岸苔 二十五絃彈夜月 不勝淸怨卻飛來”라는 <歸雁>의 시편이 초서로 墨書되어 있다.

60) 李仁榮, 『淸芬室書目』卷3. 壬辰以前刻本及鈔本. 外人撰述上. 133-134. ‘禮記[集說]’條.
 “... 洪武貳拾肆年玖月 慶尙道都觀察使安翊 進重刊陳澐集說禮記殘 ...”

4. 高麗版 『禮記集說』의 後響

『禮記』는 원래 여러 사람의 기록을 집성한 것이라 체계가 없고 번잡함이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編次에도 일정한 원칙이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禮記』에 수록된 내용은 중국 고대사회의 생활의식에 관한 기록으로 고대사회에서 ‘禮’의 영역은 국가의 통치제도에서부터 사회적인 도리의 규정 및 개인의 수신에 이르기까지 망라된 광범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수단이며 교화방법이었던 ‘禮’를 기술한 『禮記』는 儒學的 禮治主義를 선양하기 위한 교재로 중시되어 그 영향은 ‘三禮’ 중에서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禮記』는 戰國時代와 秦漢時代의 유학사상과 사회사상을 연구하고 儒學的 禮治主義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禮書이며, 황하문화가 수용·발전된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에도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 禮書이다.

『禮記』가 우리나라로 전래된 시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수용된 듯하며 통일 신라 이후로는 官吏의 등용시험에 필수과목이 되었던 듯하다.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한 『禮記』의 주석서로는 麗末鮮初의 학자인 陽村 權近이 태종 5년(1405)에 저술한 『禮記淺見錄』 26권을 비롯하여 세종조에 梅竹軒 成三問(1418-1456)과 保閑齋 申叔舟(1417-1475) 등이 서로 토론하여 『禮記』에 현토한⁶¹⁾ 『禮記大文諺讀』과 明谷 崔錫鼎(1464-1715)이 숙종 19년(1693)에 저술한 『禮記類編』 18권 및 淸沙 金在魯(1682-1759)가 영조 34년(1758)에 저술한 『禮記補註』 30권 등이 있으며, 이들 저술은 모두 陳澧의 『禮記集說』을 바탕으로 하여 탄생된 우리나라의 위대한 저작들이다.

특히 『禮記淺見錄』은 본래 牧隱 李穡이 『禮記』의 簡編을 다시 편집하고 文義의 辨論을 계획하였던 것이나 만년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착수하지 못하자, 스승의 유지를 받은 陽村 權近이 中朝에서 귀국한 후 수년간 閑居하는 동안에 본서의 저술을 결속시키고 그 후에 다시 成均館에서 수년간 『禮記』를 강론하면서 얻은 견해를 바탕으로 筆削을 거듭하여 저술한 것이다.⁶²⁾

61) 『禮記』의 懸吐에 대한 필요성은 世宗 10年 閏4月 18(己亥)日의 기사에 “上語卞季良曰 昔太宗命權近 著五經吐(凡讀書 以諺語節句讀者 俗謂之吐) 近讓之不得 遂著詩·書·易吐 唯禮記·四書無之 予慮後學 或失本意 以訓諸生 若因此而教 豈不有益 季良對曰 近尙讓之 況小臣乎 四書 臣於幼時學之 禮記則本不學 且禮記文多瑣屑 而意亦旁通 不可執一以定 先儒亦言 禮記漢儒掇拾煨燼之餘 語多未詳 似難考定 上曰 然 右議政孟思誠曰 有吐則臣恐學者不着力研究 上曰 程·朱亦慮學者 未達經書奧旨 故着註解 令其易知 外方教導若因此誨人 則豈無補乎.”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10年 閏4月 18(己亥)日條.>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히 어느 연도에 懸吐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淸芬室書目』에 의하면 현재 전래되는 ‘丁亥年六月’의 간행본은 숙종 33년(1707)에 校書館에서 戊申字로 간행한 판본으로 기록되고 있다.

62) 河崙 著, 河澗 編, 『浩亭先生文集』. 石印本 (京城: 河泳珍, 1940). 卷2. 序. ‘禮記淺見錄序(奉教作)’條. “禮經 聖人立教之大典 而切於人倫日用者也 不幸火於秦 漢儒勤於掇拾 然簡編不得其次 文理不相接 間有雜引傳記 不類於聖賢之言者多矣 至宋河南兩程氏 表章大學·中庸二篇 餘未及焉 考亭朱先生 有志刪定 亦未暇焉 及東匯澤陳氏之集說出 學者有所矜式 然其編次仍舊 學者有未滿之歎 夫溯而求其源 辨而得其正 中國之學者 猶難之 況海外之一方乎 我韓山李先生 入學中國 有高明正大之見 及東還 師範一方 欲於是經 有所論著 晚年

權近은 본래 『禮記』의 편차에 錯亂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更正할 계획이었으나 체제와 서술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자 陳澹의 『禮記集說』의 편차를 그대로 따르고 段節의 말미에 ‘按語’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편의 段節의 簡次는 과감하게 개편하고 ‘舊在’로 註를 붙이고 있다.⁶³⁾ 그 결과 權近의 『禮記淺見錄』은 한국 유학사는 물론 그의 經學思想을 연구하는데 절대적인 저술로 평가되어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⁶⁴⁾ 보존·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高麗版 『禮記集說』도 공양왕 3년(1391)에 우리나라에서 初刊된 판본이며, 陽村 權近이 『禮記淺見錄』을 저술하는데 底本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價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結 論

이상에서 中朝의 『禮記集說』의 編纂과 刊行을 바탕으로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慶尙道 尙州牧에서 覆刻된 高麗版 『禮記集說』의 간행과 관련 인물 및 그 後響 등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사실들을 고찰한 바,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禮記集說』은 원조의 至治 2년(1322)에 雲莊 陳澹에 의하여 49편 16권으로 저술된 『禮記』의 주석서로 天曆 원년(1328)에 建安의 鄭明德家에서 初刊된 바 있으며, 이 版本은 高麗로 전래되어 공양왕 3년(1391)에 慶尙道 尙州牧에서 覆刻되었다.

(2) 高麗版 『禮記集說』에 관하여는 일찍이 陶隱 李崇仁과 松隱 朴翊 및 鶴山 李仁榮 등에 의하여 언급된 바 있으나, 朴翊의 <重刊禮記集說箋略>은 그의 후손들이 『松隱先生文集』을 편집할 때 李崇仁의 <進重刊陳澹集說禮記箋>의 “臣翊言 臣聞五經皆垂世立教之大典…”의 安翊을 지칭하는 ‘翊’을 활동시기가 비슷한 그들의 선조 ‘朴翊’으로 錯入한 데에서 말미암은 오류이다.

多疾 竟未能就 以囑門人陽村權氏 陽村明敏勤儉 讀書無不究 尤精於性理之學 嘗在太祖高皇帝時 入朝京師 帝賜對 知其有學識 命題賦詩 使待詔文淵閣 得與朝之大儒劉公·董公輩日相接 聞見益正 所造益深矣 及蒙恩 還國 以讜言見忌 居間數年 乃於是經 專意參究 更次簡編 分爲經傳 文義之可疑者 皆盡辨論 題其目曰 禮記淺見錄 及我國王殿下踐阼 起爲相 職任兼成均 學者益進 講論不少懈 乃將前錄 更加筆削 積以歲月 乃克成編 承政院知申事黃喜具以聞 殿下命給奉書局紙筆 令其門人金津等繕寫以進 許於經筵進講 乃命校書館 用鑄字 印成 以備經筵講讀 以廣境內流行 仍命臣崙序其卷端 … 嗚乎盛哉 臣不勝慶幸之至 謹頓首拜手 爲之序云。”

63) 權近, 『禮記淺見錄』. 木版本. 濟州: [刊行者不明], [太宗 18(1418)]. 卷1. ‘禮記淺見錄曲禮上(著書小引)’條. “愚嘗學禮於牧隱之門 先生命之曰 禮經亡於秦火 漢儒掇拾煨燼之餘 隨其所得先後而錄之 故其文多失次而不全 程朱表章庸·學 又整頓其錯亂之簡 而他未之及 予嘗欲以尊卑之等 吉凶之辨 與夫通言之例 分門類聚 以便私觀而未就 爾宜勉之 愚既聞命時 方仕官不暇 於此嘗因擯棄閑居于村 求得是經參究同異 將類次其文意 以承先生之命 而此經之文篇各不類 曲禮與檀弓而殊 檀弓與月令而異 雖其上下吉凶之例 或有可以類分者 而文不相似不可雜置 亦以諛聞淺見 誠有所未易區分者矣 故姑即本篇而求其文義 以類相從則 古經之篇目具在 每篇之文體不失 而先生之志亦庶幾焉 觀者幸恕其僭而加正是焉.”

64) 현재 權近의 『禮記淺見錄』은 太宗 18년(1418)의 後刷本이 寶物 제905-1호로 지정되어 있다.

(3) 高麗版 『禮記集說』은 安翊이 慶尙道都觀察使로 제수되어 부임할 때에 金子粹(金自粹)와 閔安仁으로부터 간행을 부탁받아 부임하자마자 尙州牧으로 하여금 목판으로 간행하도록 하였는데 5개월 만에 완성되었으며, 元朝 鄭明德家版의 『禮記集說』과의 서지적인 특징을 대비하여 볼 때 鄭明德家에서 초간된 목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覆刻된 판본임이 확실하다.

(4) 高麗版 『禮記集說』의 간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은 당시 慶尙道觀察使인 安翊과 尙州牧使인 李復始였으며, 安翊은 간행의 전반적인 사안을 주도한 인물이고 李復始는 실제의 간행업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5) 古興藏本 高麗版 『禮記集說』의 冊頭와 冊尾에는 ‘東湖堂藏’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어 본서가 한때 ‘東湖堂’의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종 8년(1426)부터 賜暇讀書制가 실시된 이래 中宗연간(1506-1544)에 豆毛浦(玉水洞) 근처의 한강 변에 설치되었다가 임진왜란으로 없어진 ‘東湖讀書堂’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6)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한 『禮記』의 주석서로는 陽村 權近이 저술한 『禮記淺見錄』을 비롯하여 梅竹軒 成三問과 保閑齋 申叔舟가 서로 토론하여 懸吐한 『禮記大文諺讀』, 明谷 崔錫鼎이 저술한 『禮記類編』, 淸沙 金在魯가 저술한 『禮記補註』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陳澧의 『禮記集說』을 바탕으로 하여 탄생된 우리나라의 위대한 저술들이다.

(7) 高麗版 『禮記集說』은 공양왕 3년(1391)에 우리나라에서 初刊된 판본으로 陽村 權近이 『禮記淺見錄』을 저술하는 底本이 되었다는 점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價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原典資料]

- 柯劭忞 等撰. 『新元史』. 活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刊行年不明].
- 孔穎達 等撰. 『禮記正義』. <國際文化出版公司 [編], 『十三經注疏』. 第4冊 所收分(三河: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
- 國會圖書館 編. 『道先生案』. 影印本. 서울: [國會圖書館], 1970.
- 權近 著. 『禮記淺見錄』. 木版本. 濟州: [刊行者不明], [太宗 18(1418)].
- 金宗瑞 等撰. 『高麗史節要』.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 朴翊 著, 朴在時 編. 『松隱先生文集』. 木版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憲宗 4(1838)].
- 班固 等撰. 『漢書藝文志』. <楊家駱 主編, 『漢隋藝文經籍志』. 臺北: 世界書局, 民國 62(1973)>.
- 徐居正 等撰. 『東文選』. 木版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刊行年不明].
- 楊天宇. “略論禮是鄭學.” 『齊魯學刊』. 曲阜: 齊魯學刊編輯部, 2002.

- 王昉 等撰.『欽定續文獻通考』.活字本.[刊行地不明]:[刊行者不明],[刊行年不明].
- 李穡 著,李德洙 編.『牧隱文藁』.木版本.[刊行地不明]:[刊行處不明],[仁祖 4(1626)].
- 李崇仁 著,卞季良 編次.『陶隱先生文集』.木版本.[刊行地不明]:[刊行處不明],[刊行年不明].
- 李仁榮 著.『清芬室書目』.影印本.서울:寶庫社,1993.
- 李荇 等撰.『新增東國輿地勝覽』.[刊行地未詳]:[刊行者未詳],[光海君 3(1611)].
- 長孫無忌 等撰.『隋書經籍志』.<楊家駱 主編,『漢隋藝文經籍志』.臺北:世界書局,民國 62(1973)>.
- 陳澧 著.『禮記[集說]』.木版本.[建安]:[鄭明德家],[天曆 1(1328)].卷1.<上海圖書館藏本>.
- 陳澧 著.『禮記[集說]』.木版本.[慶尙道]:[尙州牧],[恭讓王 3(1391)].卷1-2.<古興藏本>.
- 陳澧 著.『禮記[集說]』.木版本.[慶尙道]:[尙州牧],[恭讓王 3(1391)].卷4-6.<奎章閣藏本 古 181.1143-J562-v.4/6>.
- 崔錫鼎.『禮記類編』.活字(戊申字)本.[刊行地不明]:[刊行者不明],肅宗 26(1700).
- 春秋館 編.『朝鮮王朝實錄』.影印本.서울:國史編纂委員會,1986.<太祖實錄>·<太宗實錄>·<世宗實錄>·<中宗實錄>.
- [編著者不明].『慶尙道邑誌』.筆寫本.[筆寫地不明]:[筆寫者不明],[筆寫年不明].
- [編著者不明].『南譜』.筆寫本.[筆寫地不明]:[筆寫者不明],[筆寫年不明].
- 河崙 著,河洙 編.『浩亭先生文集』.石印本.京城:河泳珍,1940.

[單行本·論文]

- 戴雅萍.“陳澧 禮記集說 平議.”碩士學位論文.南京師範大學.2012.
- 劉千惠.“陳澧 禮記集說之研究.”碩士學位論文.東吳大學.民國 97(2008).
- 沈乃文.“禮記集說版本考.”『國學研究』第5卷(1998).289-302.
- 劉千惠.“陳澧『禮記集說』之版本析論.”『儒家典籍與思想研究』第2輯(2010).124-144.

[電子情報源]

- 國立中央圖書館: <http://www.nl.go.kr/>
- 奎章閣韓國學研究院: <http://e-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 中國哲學書電子計劃: <http://ctext.org/wiki.pl?if=gb&res=237159>
- 韓國古典翻譯院: <http://db.itkc.or.kr/>